

제/1/주/제

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과 태안군의 대응방안

오 용 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
(yjuno@cdi.re.kr)

Contents

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과 태안군 대응방안

01. 논의 개요
02. 내포신도시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
03. 태안군 관련계획
04. 태안군 현황과 과제
05. 상생발전구상
06. 결론 및 정책건의

01

논의 개요

01_1 논의 배경 및 목적

01_2 논의 범위



01_1 논의 배경 및 목적

- 지역균형발전거점으로 흥성, 예산군 일원에 내포신도시가 조성
 - 내포신도시에 도청과 유관기관이 이전, 환황해권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
 -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
- 아름다운 휴양도시, 태안의 군정방향을 복합화·고도화할 시점
 - 휴양도시의 이미지를 수용하면서 태안군의 자립적인 특화발전을 도모
 - 내포신도시와 태안군이 연계·협력을 통해 성장역량을 결집·확산해야 한다는 요구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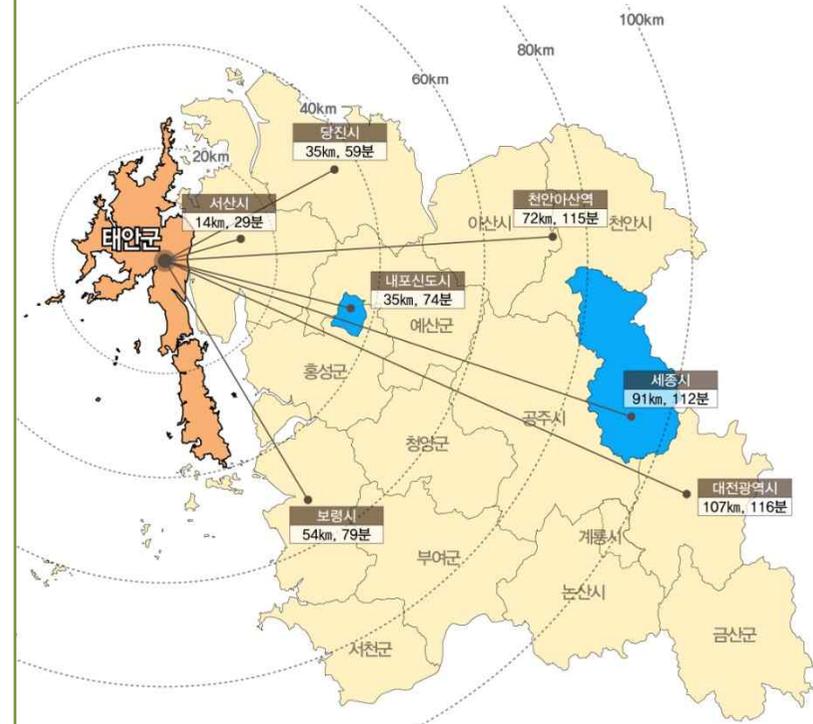


- 내포신도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태안군 내부로 유인하기 위한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

01_2 논의 범위

- 시간적 범위 : 2013~2020년
 - 1단계(2009~2015년, 신도시 조성단계)
 - 2단계(2016~2020년, 신도시 발전단계)
- 내용적 범위
 -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**위험**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
 -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**기회**요인을 확대할 수 있는 **상생발전정책**

- 공간적 범위 : 태안군
 - 태안군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 영향권 범위 내 시·군



02

내포신도시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

02_1 중부권 공간구조의 변화

02_2 내포신도시의 영향권



02. 내포신도시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

02_1 중부권 공간구조의 변화

- 우리 나라 국토개발의 경향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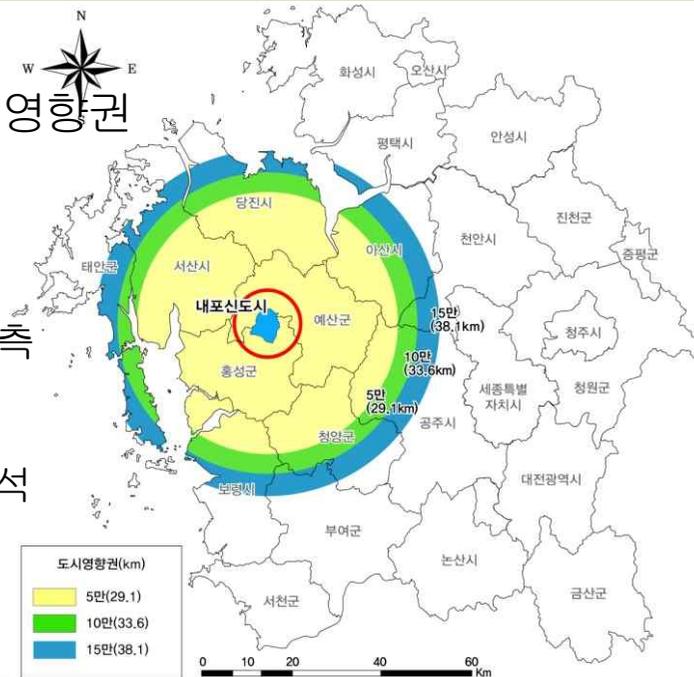
-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고, 태안군은 내포신도시와의 공간적·기능적 관계 속에서 도시기능을 설정할 필요

02. 내포신도시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

02_2 내포신도시의 영향권 : 물리적 관점

- 내포신도시의 물리적 영향권 : 인구이동 도시영향권

- 도시의 인구수와 이동거리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통근·통학자수를 이용
- 내포신도시의 인구이동 5% 도시영향권 범위를 예측
- 내포신도시 인구가 10만명일 때 영향권은 신도시 이동인구나 거리를 기초로 약 33.6km로 분석



- 향후 내포신도시가 태안군 일부지역을 포섭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의 단계별 계획에 따른 태안군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

02. 내포신도시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

02_2 내포신도시의 영향권 : 정책적 관점

- 내포신도시의 긍정적 파급효과
 - 도청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환황해권(중국) 성장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 마련
 - 환황해권 중심지로서 지역역할 강화, 지역 정체성 강화, 산업구조 변화, 문화관광 발전 등 유도
- 내포신도시의 부정적 파급효과
 - 홍성·예산군의 행·재정적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,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으로 난개발 우려
 - 내포신도시와 주변 시·군 구도심과 격차로 인구 및 자본이 빨려드는 역류효과 발생 가능



- 태안군은 내포신도시 건설로 지역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촉진하는 사회·문화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

03

태안군 관련계획 검토

03_1 상위계획

03_2 관련계획

03_3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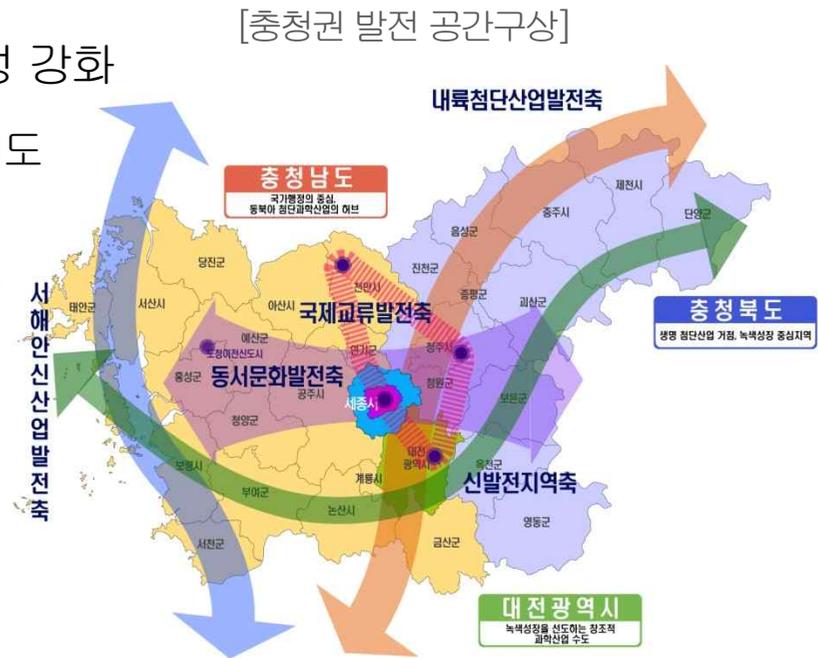


03_1 상위계획 :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11~2020)

- 지역발전거점 도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강화
 - 신성장거점도시(세종시, 도청이전신도시, 기업도시 등)와 주변도시간 광역도시권을 형성
 - 세종시, 내포신도시는 내륙 동서지역간 발전축의 결절점, 전국으로부터의 교환통로

- 충청권 광역연계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

- 서해안 물류수송망 구축을 위한 서해산업철도 (인주~안흥) 검토
-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기반 구축
- 광역생태축(금북정맥, 사구 등) 보전사업과 해안 둘레길 조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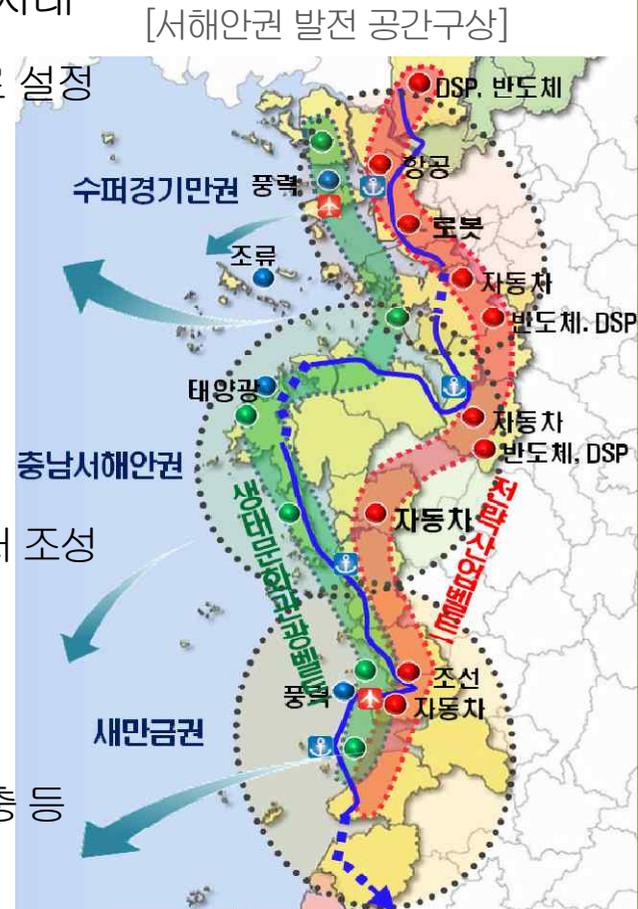
03_1 상위계획 :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(2011~2020)*

- 국제관광거점 및 국가기간산업의 녹색성장 중심지대

- 충남 서해안을 서해 국제관광 융·복합 메가경제권으로 설정
* 『동·서·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』에 의한 법정계획

- 관광 및 어촌 경쟁력 강화사업(12개)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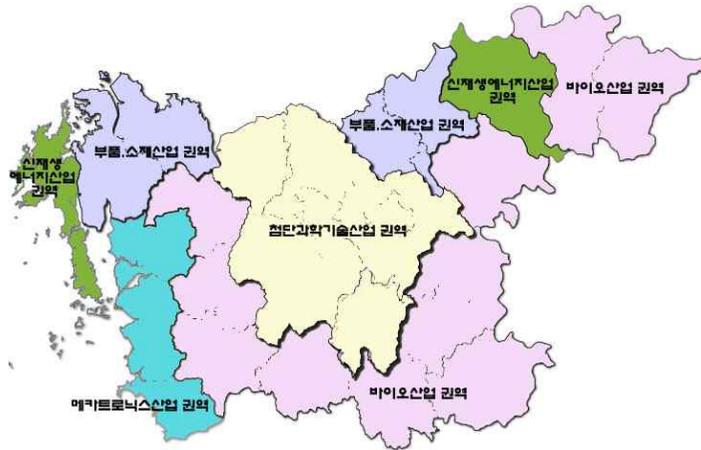
- 태안 항공레저 및 R&D단지 조성
- 태안 에너지 종합특구 조성
- 태안 농어촌 녹색신성장지역 육성
- 화훼 전문수출단지 육성, 농수축산 바이오 R&D 클러스터 조성
- 지구환경보전상징화 사업, 신두리 사구 자원화사업
-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, 안면도 관광지 조성
- 지역간 관광연계 추진(안흥항)
- 당진~태안 고속국도 건설, 서산~태안간 국도 77호선 확충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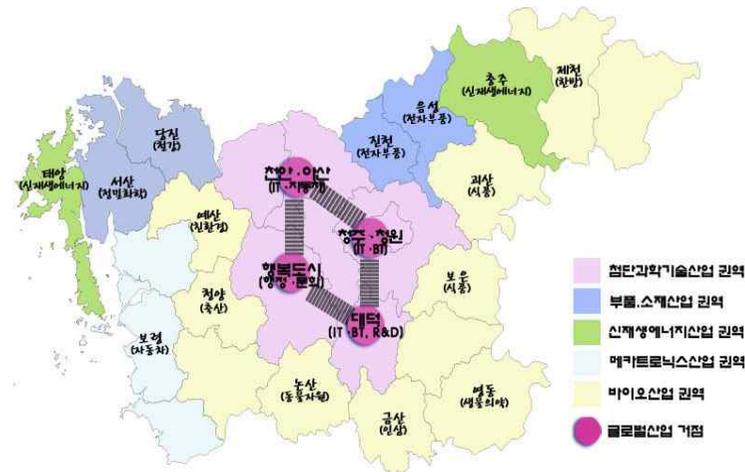
03_1 상위계획 :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(2009~2013)

- 태안군은 4대 광역 연계 산업권 중 신재생에너지 산업권역으로 분류
 - 대덕연구 개발특구~세종~천안·아산~황해경제자유구역을 광역적으로 연계해 성장엔진화
 -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2단계(2012~2014년 : New IT, 의약 바이오, 차세대 에너지, 융합기계부품)로 진입 vs.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의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

[충청권 5대 광역 연계 산업권]



[Hub & Spoke형 광역클러스터]



03_1 상위계획 :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(2012~2020)

● 서해안권 :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, 해양휴양·관광의 메카

- 서해안권은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고,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,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,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
- 태안군 관련사업으로는 항공레저 R&D 단지, 농공단지, 국립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, 기업도시, 태안 바다낚시공원, 해안 관광자전거도로, 서해산업선철도, 달산포 체육청소년시설, 태안 종합에너지특구,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 등이 반영

[충청남도 미래발전구상]



03_1 상위계획 : 관련 관광개발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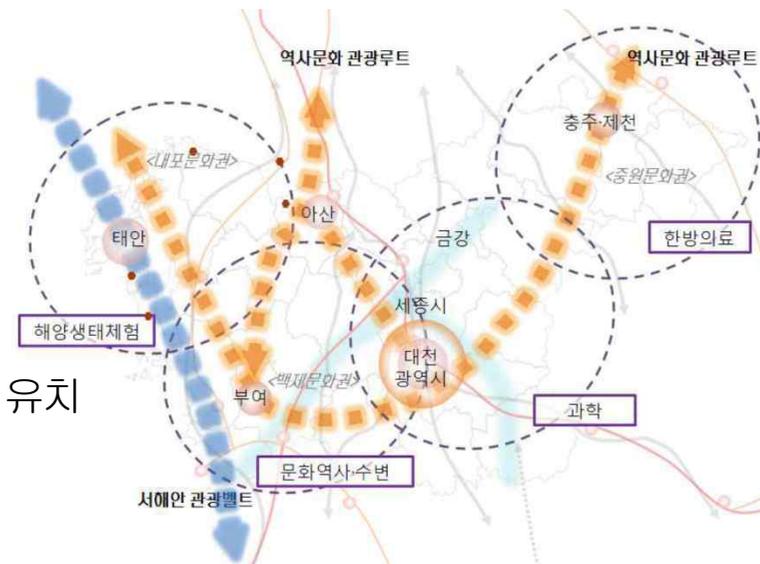
- [국가]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(2012~2020)

- 태안군은 서해안 관광벨트(수도·충청·호남)의 거점 중 하나
- 서해안과 습지 등을 연계한 국가 탐방로 조성, 당진~서천간 해안도로 조성사업 등이 제시

- [광역]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(2012~2016)

[충청권 관광개발 구상]

- 태안군은 충남의 5대 관광권역 중 해양도서 관광권(보령, 태안, 서천)으로 분류
- 지정관광지 30개소(신규 4*) 중 만리포, 안면도 관광지 반영
 - * 골트힐카운티, 청양관광지, 원산도, 지포관광지
- 안면도 관광지를 지포·꽃지 지구로 분리, 민자 유치
- 핵심관광자원으로 태양광에너지단지가 반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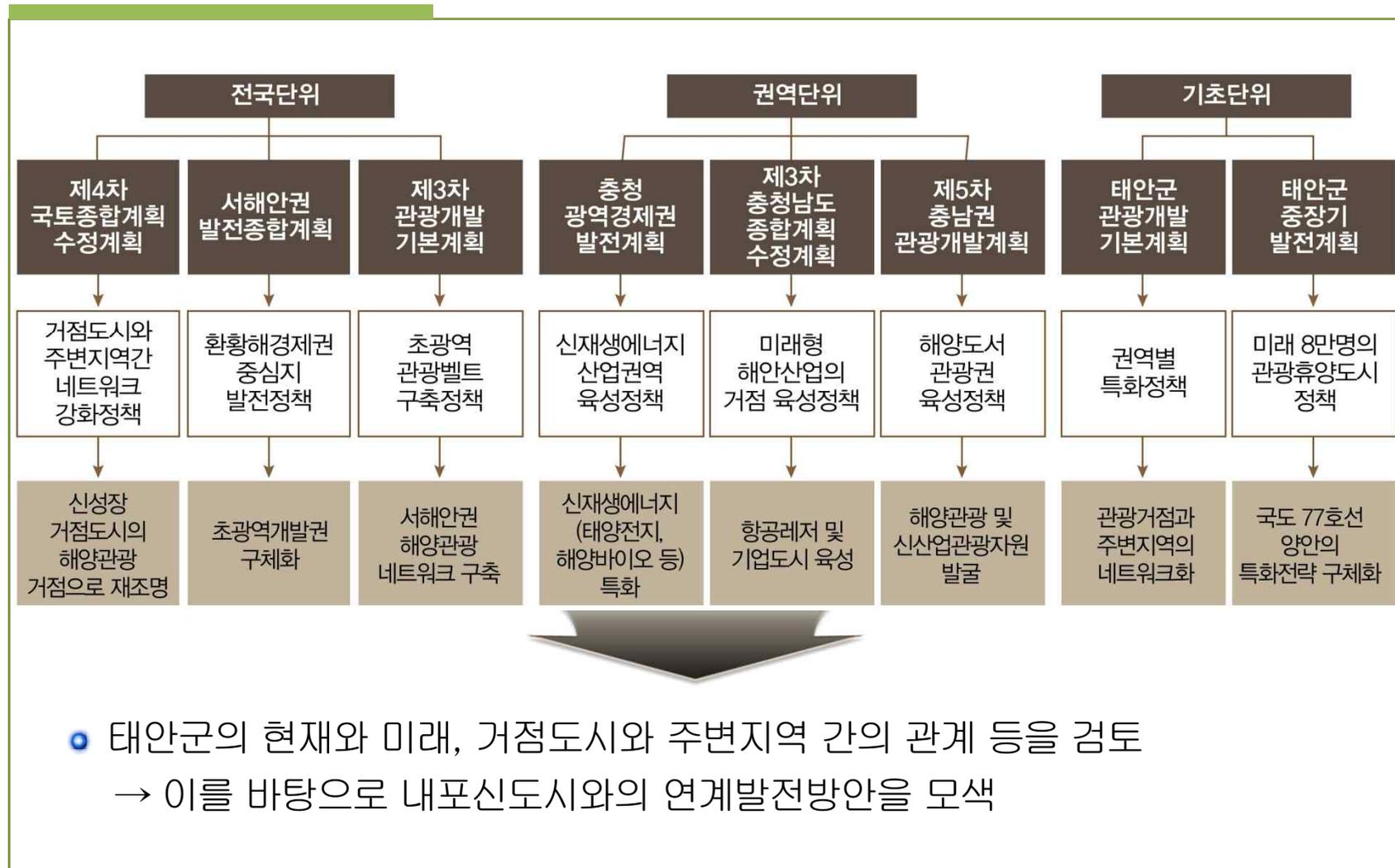
03_2 관련계획 :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(2008~2020)

- 2020년 계획인구 약 8만명
 - 서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휴양도시, 에너지 자립형 환경도시, 도농복합형 자족도시를 목표

 - 공간구조는 1 대생활권 1 소생활권 중심
 - 2020년 대생활권(기업도시 및 태안읍 중심)과 소생활권(안면읍 중심)으로 구분
 -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해양문화관광벨트(만대포구~태안종합에너지특구~학암포~신두사구~소근진성~만리포~안흥항)과 PINE Coast(태안읍~기업도시~안면도) 등 2개의 벨트를 형성
- * PINE(Pleasure In Nature & Entertainment)



03_3 시사점



* `빈곤을 타파하기 위해
관광을 증대하라`
(UNWTO 사무총장
Frangilli, 2007)

04_1 대내·외 여건변화 전망 : 대외적

-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한 관광경쟁력 강화 필요
 - 세계관광객수는 `90년 4.2억명에서 `07년 9.0억명으로 증가하였고, 관광수입도 `90년 264억달러에서 `07년 856억달러(약 880조)로 증가(World Tourism Organization, 2008)
 - 환율과 한류효과로 방한객은 꾸준히 증가 vs. 충남의 名人, 名所, 名品 세계화 전략은 미비
 - 2011년 World Economic Forum 관광산업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,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은 OECD 34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, 문화자원의 경쟁력은 우수하나 각종 규제, 취약한 인프라, 수용태세 미비 등으로 투자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
 - 관광누손율(수익이 새어나가는 비율)에 대한 우려도 확산(Jeremy Rifkin, 2001)



- 21세기 해양시대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서해안 발전전략 모색이 중요한 시기로서 태안군은 특별관심관광에 초점을 두고 名所, 名品 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

04_1 대내·외 여건변화 전망 : 대내적

- 새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, 도시권 발전정책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
 - 광역경제권 보다 작은 단위인 도시권(City Region)을 강조하는 정책이 대두될 가능성
 - 성장거점전략의 연계가능성이 증대,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대한 중앙지원이 확대
- 외생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 내발적 발전을 요구
 - 외부자본에 의존하는 지역개발보다 지역의 창조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시
 - 관광개발사업의 효과가 지역 내부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관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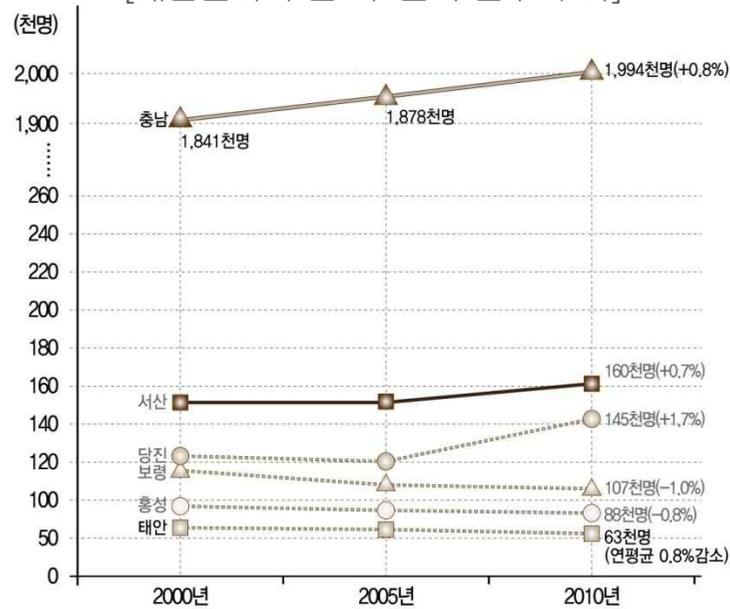


- 태안군 차원에서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권을 형성하고,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주민체감형 도시정책을 추진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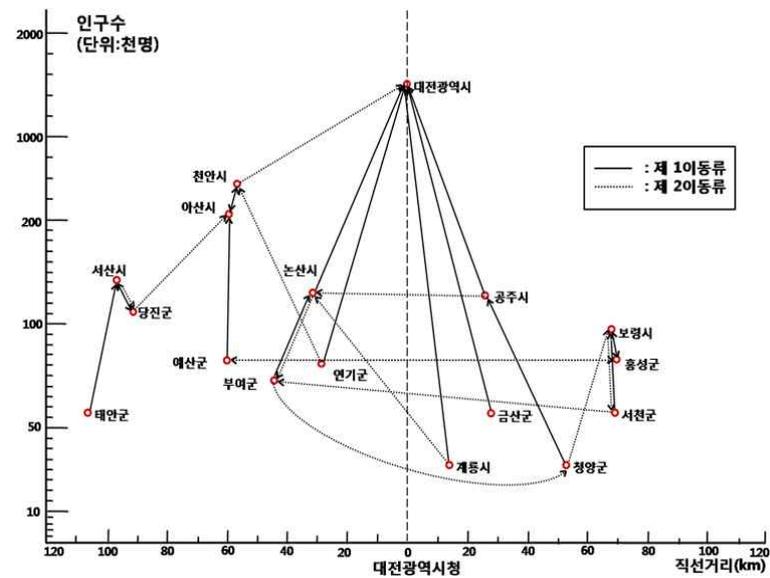
04_2 지역현황 검토 : 인구

- 2010년 인구 63,247명 → 초고령사회(태안 고령화율 21.6% vs. 충남 14.9%)
 - 인구는 최근 10년간(`00-`10) 연평균 0.8% 감소 vs. 2020년 계획인구 8.3만명
 - 태안군은 제1이동류에 의한 통근·통학권으로 서산시와 하나의 권역

[태안군과 주변 시·군의 인구 추이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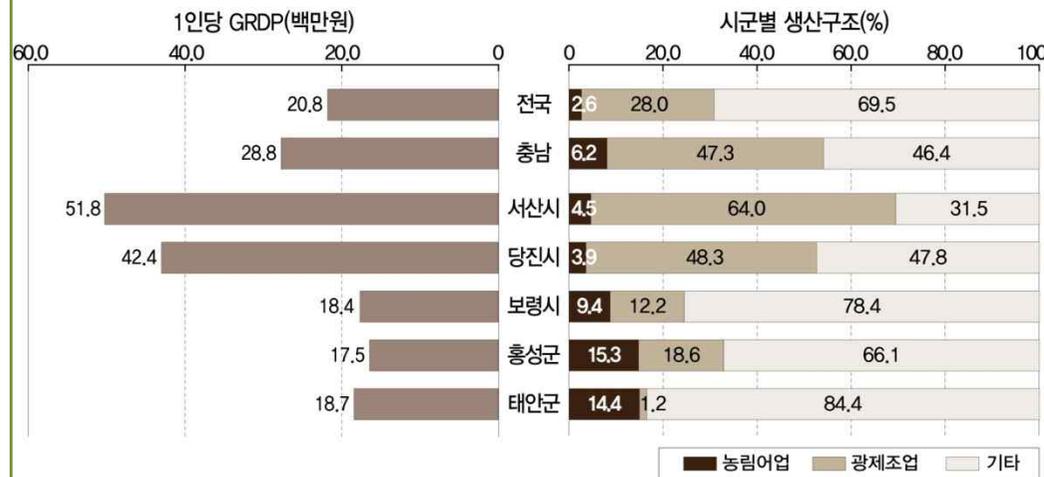
[통근·통학에 의한 대전·충남지역의 도시계층구조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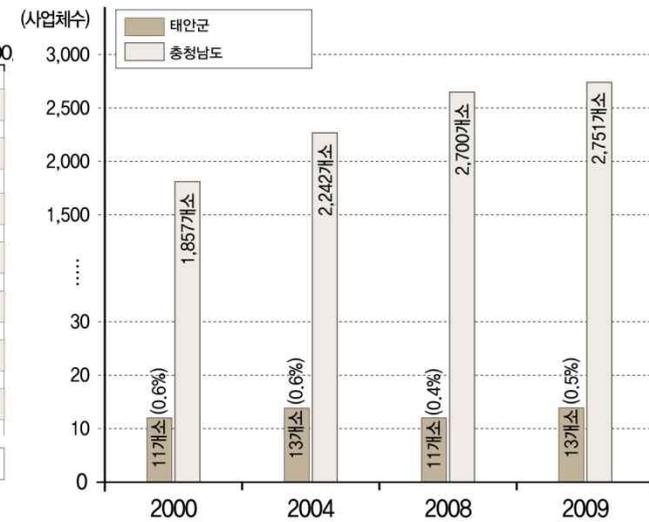
04_2 지역현황 검토 : 산업환경

- '08년 1인당 GRDP는 전국평균, 충남평균을 하회
 - 1인당 GRDP는 18.7백만원으로 전국평균(20.8백만원) 및 충남 평균(28.8백만원)을 하회
 - 제조업체 증가율이 1.9%('00~'09년)로 충남 평균 증가율(4.2%)을 크게 하회하기 때문

[태안군과 주변 시·군의 1인당 GRDP와 산업구조]



[제조업체수 증가추이]



주1 : 종사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함

04_2 지역현황 검토 : 관광환경

- 태안은 서해안 해양도서 관광권의 핵심지역
 - 태안 8경,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천리포·청산수목원 입지
 -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32개 해수욕장, 119개 도서(유인도 10), 11개 항·포구(안흥항 등), 체험자원(해루질, 맛조개, 골뱅이, 게, 고동잡이 등), 전통어로자원 등이 분포
 - 관광객수는 `10년 현재 **11,912천명** 수준, 최근 5년(`06-`10)간 연평균 12.9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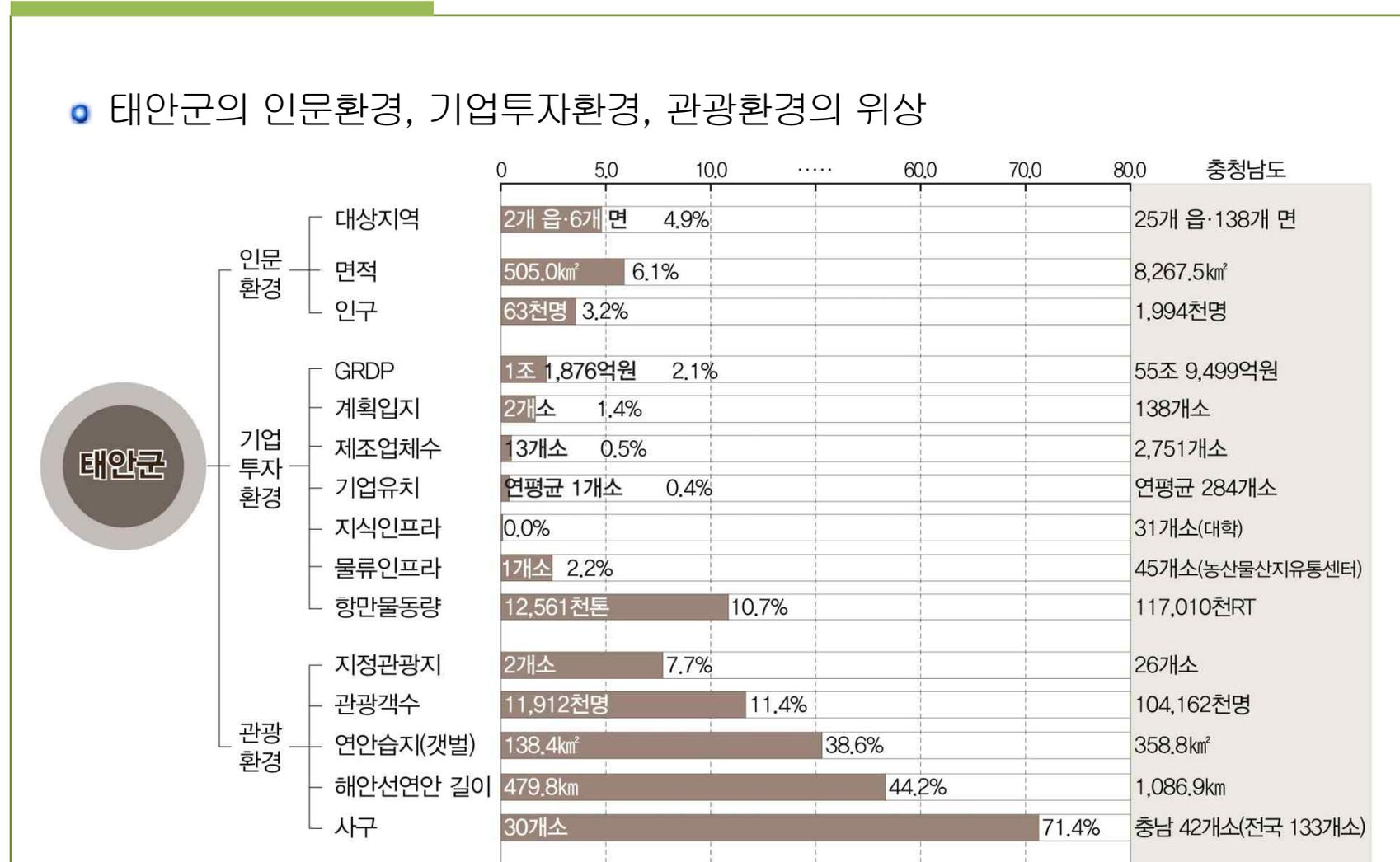


- 관광산업으로 유발되는 소득과 고용의 파급이 태안군에 어느 정도 재 투입되는지, 타 지역으로는 얼마나 유출되는지 별도의 분석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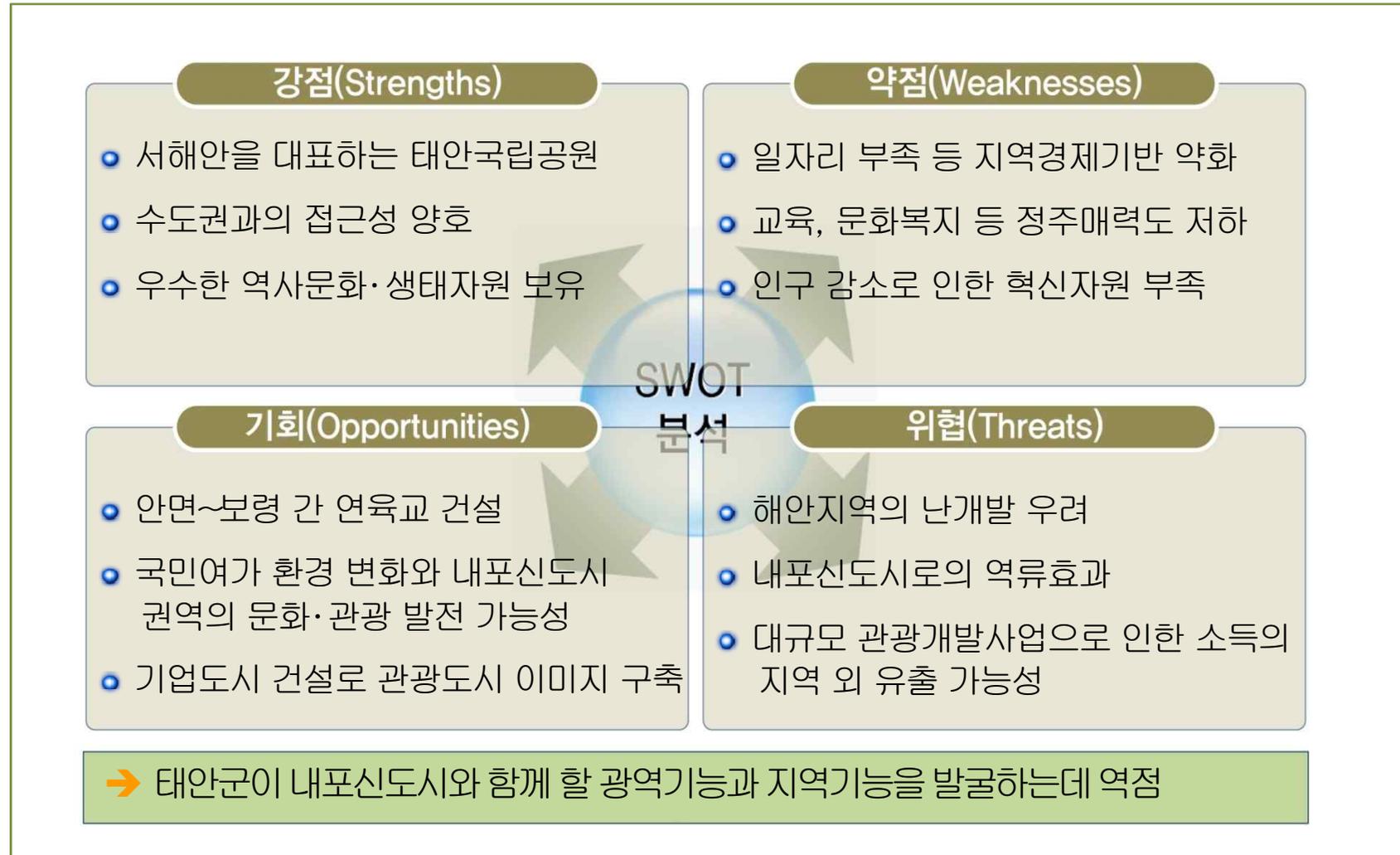


04_2 지역현황 검토 : 종합

태안군의 인문환경, 기업투자환경, 관광환경의 위상



04_3 개발여건 분석



05

상생발전구상

05_1 발전방향

05_2 상생발전과제

05_3 상생발전전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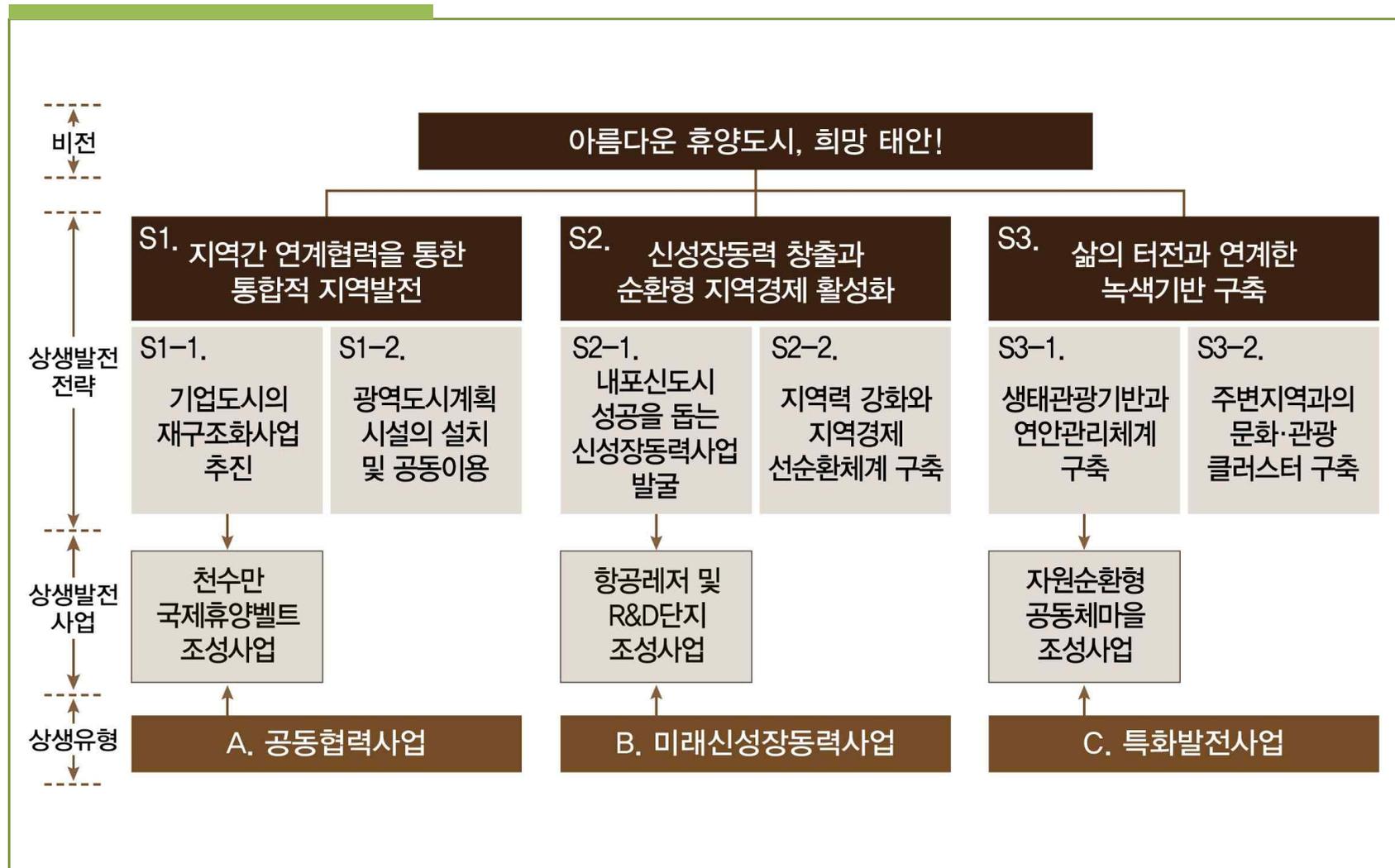
05_1 상생발전방향

-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
 -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연합 구성, 기업도시의 재구조화를 통해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
 - 아산만권 광역시설(도로, 항만 등)의 확충과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시설의 공동 이용

- 신성장동력 창출과 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
 - 내포신도시와 연계된 첨단녹색산업 발굴을 통해 신성장동력 육성
 - 창조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력(地域力) 강화, 기업유치 효과가 지역에 순환되는 체계 구축

- 삶의 터전과 연계한 녹색기반 구축
 - 저탄소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체험 및 생태관광 확산
 - 국도 77호선, 해양 및 에너지 자원 등을 매개로 한 지역간의 연계협력을 추진

05_2 상생발전과제



Strategy 01

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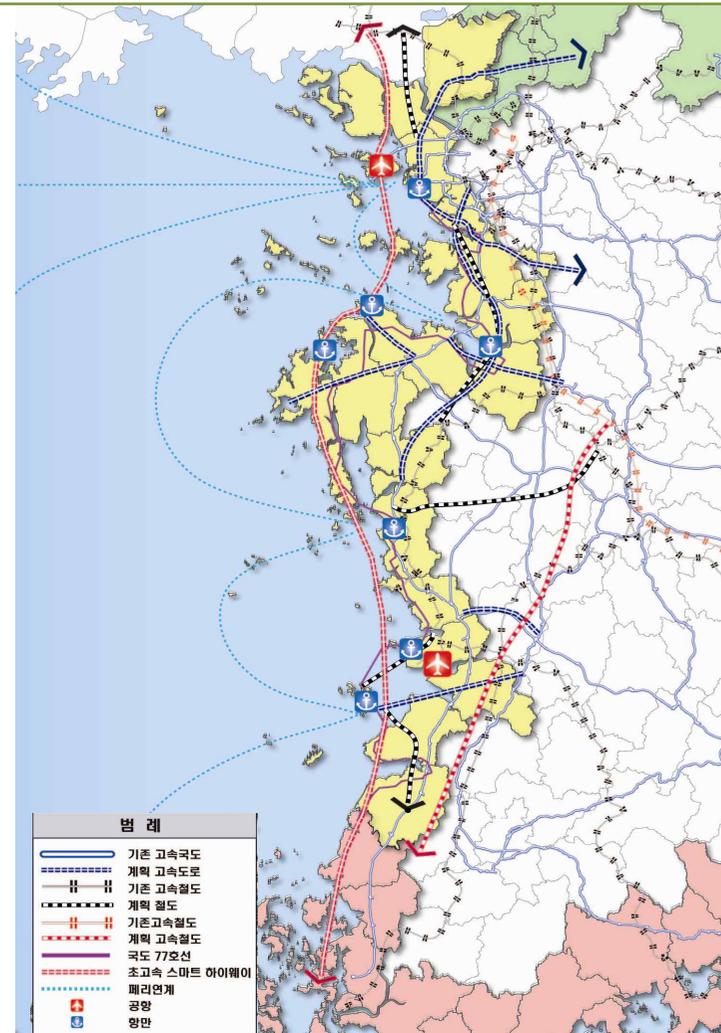
05_3 상생발전전략 1 :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 - 추진과제

- S1-1. 기업도시의 재구조화사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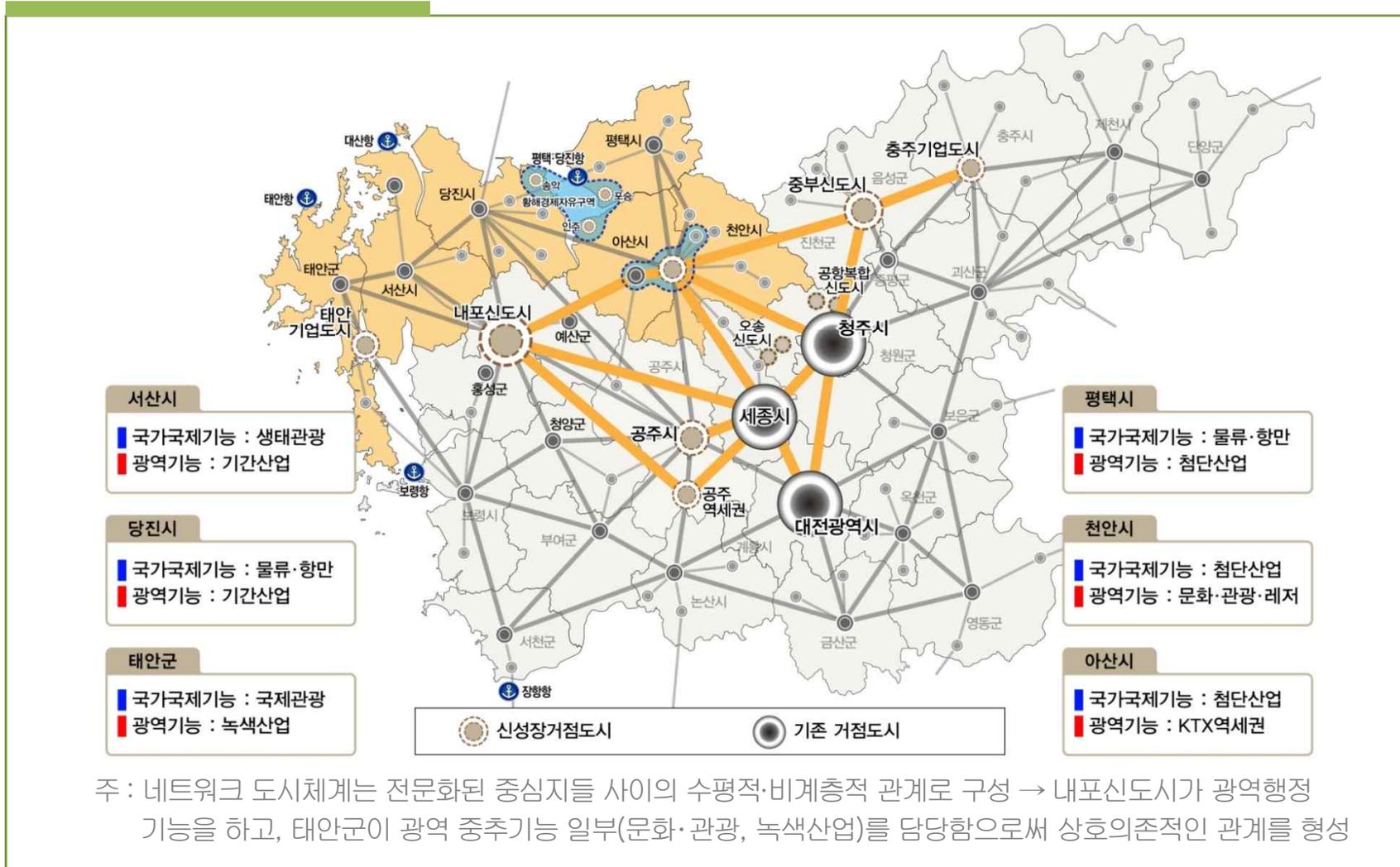
 - 공공투자방식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투자 촉진 위한 신 개념 관광특구 등 대안개발방식을 통해 기업도시의 정상 추진 도모
 - 태안기업도시와 서산월빙특구를 연계하여 천수만 국제휴양벨트를 조성

- S1-2.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공동이용

 -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주요항만(평택~당진~태안~새만금)의 국제비즈니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서해안 초고속(120~160km/h) Smart Highway 건설
 - 거점간 공동이용, 종합이용, 상호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광역시설 공동이용체계를 구축



05_3 상생발전전략 1 :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 - 기본구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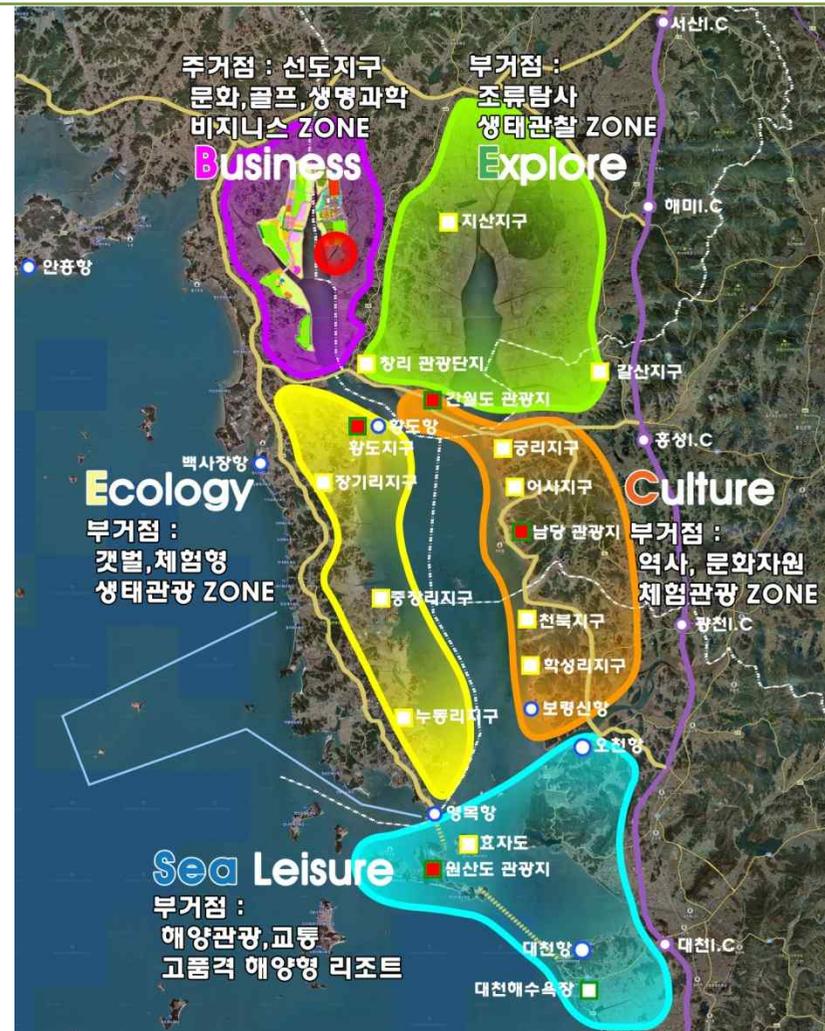


05_3 상생발전전략 1 :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 - 사업 예시

● 천수만 국제휴양벨트 조성사업

구 분	대상지역	도입기능
Business (선도지구 :문화,체육)	부남호 지구	[비즈니스 테마] 문화, 골프, 생명 과학
Explore (조류탐사)	간월호 지구	[생태 테마] 조류 탐사 등 생태관광
Culture (역사·문화 자원)	궁리~보령신항	[관광 테마] 역사 자원, 바다목장 (죽도) 체험
Ecology (갯벌체험)	영목항~황도	[환경 테마] 갯벌, 체험형 관광
Sea Leisure (해양관광)	원산도~대천 해수욕장	해양레저 테마, 리조트

자료: 충청남도, 2012, 2030 충남 Grand Vision



Strategy 02

신성장동력 창출과 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

05_3 상생발전전략 2 : 신성장동력 창출과 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 -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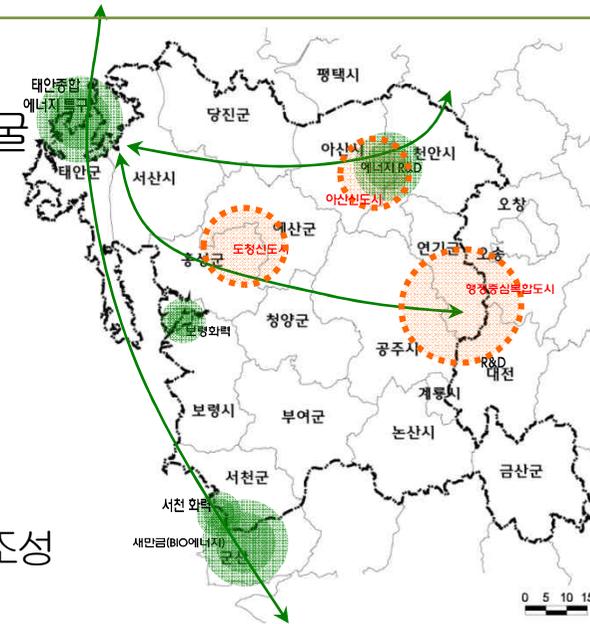
● S2-1. 내포신도시 성공을 돕는 신성장동력사업 발굴

- [항공산업] 한서대 비행장을 중심으로 항공레저 및 R&D 단지를 조성
- [녹색산업] 고부가가치 분야인 소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등의 혁신기능을 추가하여 태양광 산업 수직 계열화를 통한 집적(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장 등), 태안화력 여열활용 식물원 및 원예단지를 이원간척지구에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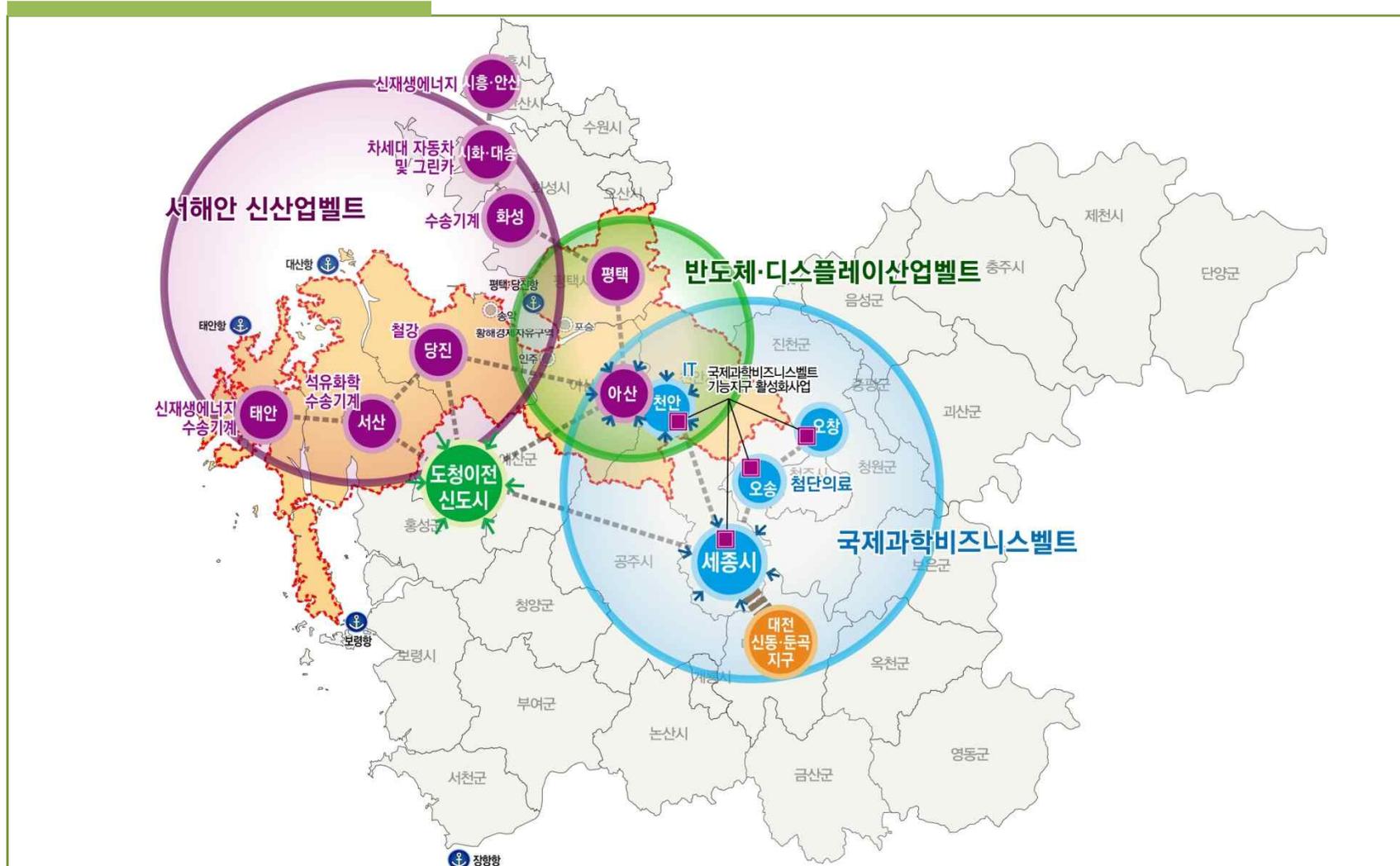
● S2-2. 지역력 강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

- 창조자원 발굴과 사회적 경제* 확대를 통해 개성 있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태안을 조성
- 근로자(약 250인) 가족의 동반이주 촉진을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, 유치기업과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인 일체감을 유도

* 2011년 현재 충남형 사회적 기업 1개소, 마을기업(행정안전부) 3개소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 중



05_3 상생발전전략 2: 신성장동력 창출과 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 - 기본구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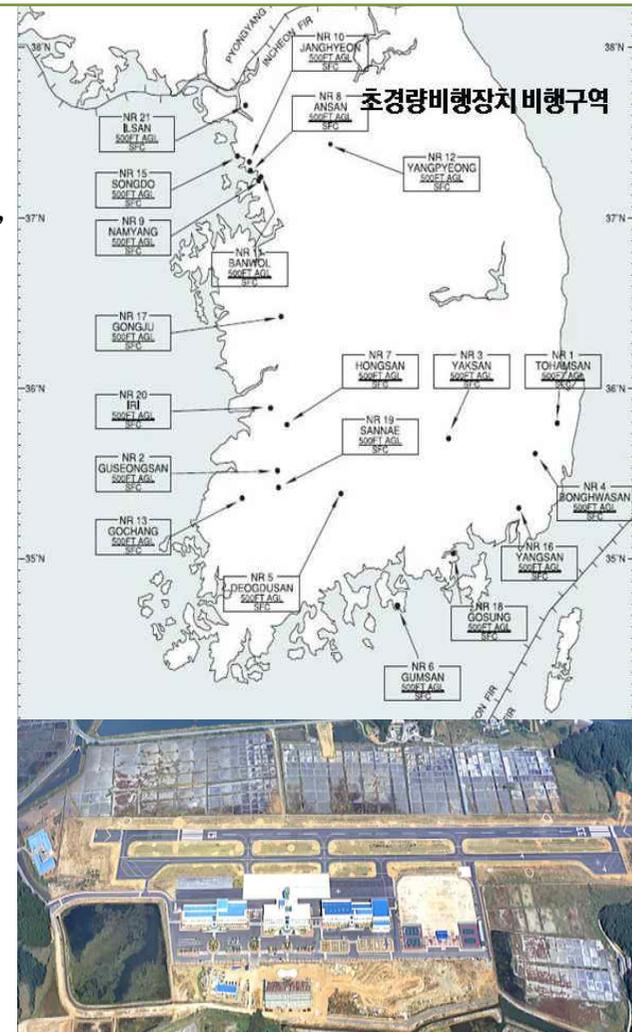


05_3 상생발전전략 2 : 신성장동력 창출과 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 - 사업 예시

- 항공레저 및 R&D 단지 조성사업
 - 태안 한서대학교 비행장과 항공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,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을 중심으로 비행장치 검사소, 해안자원과 연계하여 해양+항공레저산업 콤플렉스 기반(한서대 항공창업보육센터 확충, 경비행기 운항 위한 활주로 확장) 조성
 - 기존 항공산업의 틈새시장(초경량비행장치, 스포츠 플레인 시장)을 개척하여 항공레저와 해양레저의 융복합 기반을 구축



- 항공레저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발전



Strategy 03

삶의 터전과 연계한 녹색기반 구축

05_3 상생발전전략 3 : 삶의 터전과 연계한 녹색기반 구축 :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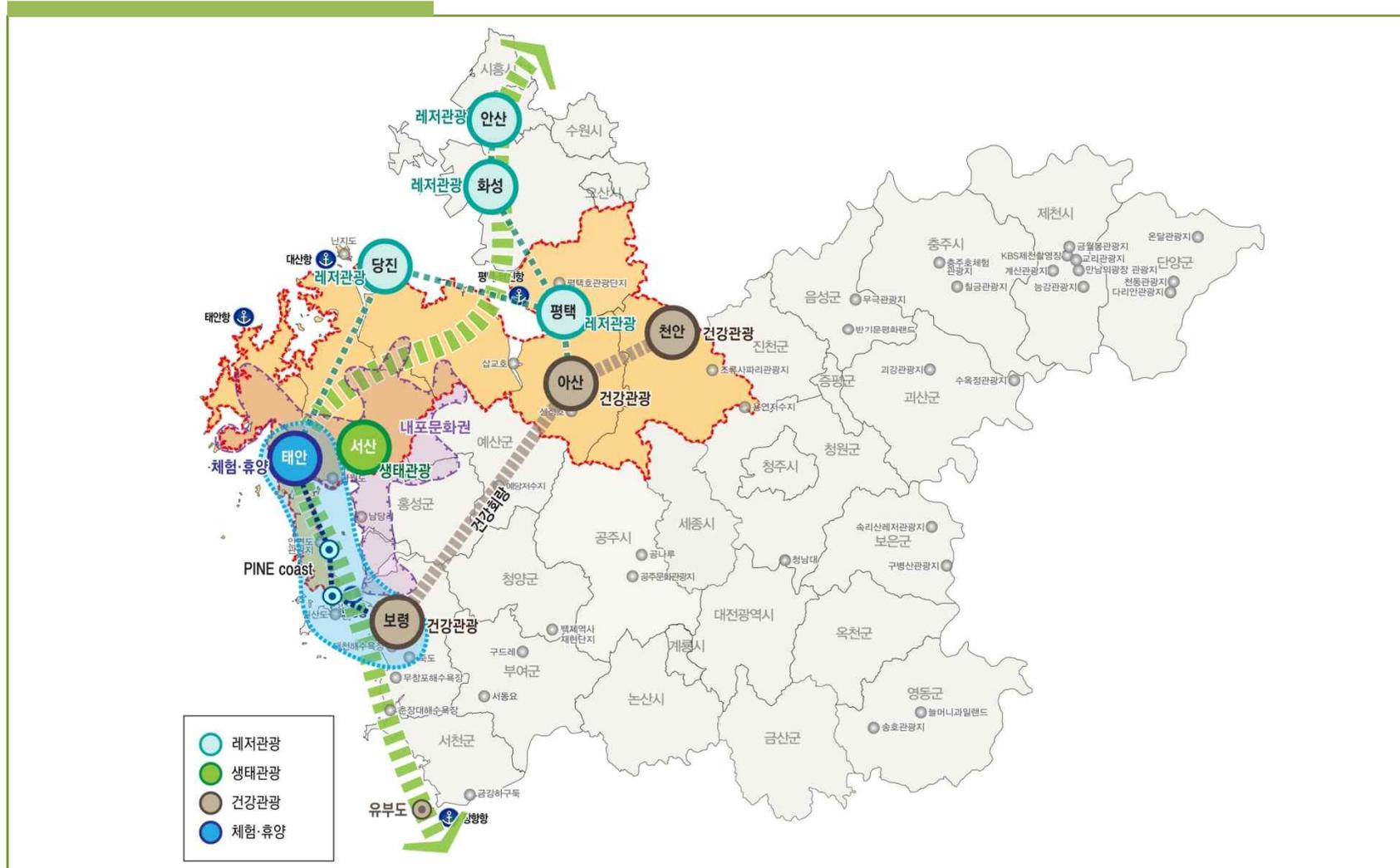
● S3-1. 생태관광기반과 연안관리체계 구축

- 생태관광역량을 강화기 위해 농어촌마을의 녹색신성장 타운화를 추진하고, 지역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먹거리 개발과 판매, 녹색식생활문화를 체험하는 녹색 Slow Food마을을 조성
 - 자연해안관리목표제*를 통해 서산시, 보령시, 홍성군 등과 연안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가로림만 조력발전 갈등사업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조정
- *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통해 자연해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훼손된 자연해안을 복원하고,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나 해안도로 건설 등 주민지원 숙원사업 등을 조정

● S3-2. 주변지역과의 문화·관광 클러스터 구축

- 국도 77호선 경유 지자체(화성~태안~군산~여수 등) 간 녹색관광 협력을 위한 공동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, 관광진흥 공동기금을 확보해 지역간 녹색관광 협력사업을 추진
- 내포신도시 관광객 이동패턴에 따라 공동 City Tour사업을 추진하고, 공동프로모션 사업(생태관광, 힐링관광상품 등)을 발굴

05_3 상생발전전략 3 : 삶의 터전과 연계한 녹색기반 구축 : 기본구상



05_3 상생발전전략 3 : 삶의 터전과 연계한 녹색기반 구축 : 사업 예시



- 자원순환형 공동체 마을 조성사업
 - 인간과 생태환경을 가까이 하는 자원순환형 공동체 마을을 조성 및 분양하여 귀농자가 유기농법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기농 무항생제 목장(신두리 사구에서 멸종된 쇠똥구리를 복원)을 운영하는 마을로 조성
 - 수익형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 주식회사 개념으로 유기농업체를 모아 입주민에게 투자를 받고, 작목반과 함께 유기농 작물, 약용식물 등을 재배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, (농가)주택과 일정 규모의 농지를 묶어 패키지로 분양
 - 생산물은 내포신도시 입주기관과 친환경 농축산물 우선 구매제 도입을 위한 MOU 체결,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유통판로를 개척
- 
- 신 개념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마을 조성을 통해 인구를 증대하고 도농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

06

결론 및 정책제언



➔ 태안군의 지역발전, 창조적 자산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이 관건 !

- 태안군은 내포신도시 개발이 진행될수록 긍정적 파급효과를 향유할 전망
 - 내포신도시 성장단계에는 광역행정기능 등의 입주에 따른 관련기관이나 관광기반시설 등의 수요가 태안군에 나타나면서 내포신도시 건설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
- 
- 태안군의 대·내외적인 여건변화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모색할 시점!
 - 내포신도시의 진화론적 관점(1단계, 2단계)에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
 - 다만, 지역개발사업의 효과가 지역에 착근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, 지역의 생태·문화를 활용한 지역개발(생태관광, 로컬에너지 등)에 초점